

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서울경제는 '23.9.26일자 「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 ... 수천억 배상 요구에 '나 몰라라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금융당국도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< 보도 세부내용 >

- 당국은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 신탁 총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%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규제를 신설할 방침
- 책준신탁의 손배 책임범위 및 시기 명확화, 준공 필수사업비 100% 사전 확보 원칙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실시
- NCR 산정시 책준신탁 신용위험액에 시행사·시공사의 신용위험 등도 반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금융위·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신탁 관련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, 현재 검토중에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은 (02-2100-2661)
담당 부서 <공동>	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	책임자	국 장	김효희 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송현철 (02-3145-6752)